

진도 홍주 캐나다 수출

향상대회...1만弗 납품 계약

미(味), 향(香), 색(色)을 고루 갖춘 진도 홍주가 캐나다로 수출된다. 진도군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7회 세계향상대회’에서 진도군수가 품질을 인정한 홍주 업체와 캐나다 주류 면허업체인 I.D.S와 1만 달러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대회 기간에 시음회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관련 산업 종사자 1천여 명에게 진도 홍주의 미, 향, 색을 느끼게 했으며 맛을 본 바이어들의 상담이 줄을 이었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그동안 국내 주류 관련 최대 행사인 ‘2008 서울 국제주류박람회’와 ‘홍콩 국제 와인 박람회’ 등에 참가해 진도 홍주의 우수성을 알렸다.

전통 민속주인 진도 홍주는 쌀과 보리를 원료로 증류해 만든 곡주에 한약재 지초를 사용, 지초주(芝草酒)라고도 하였으며 미, 향, 색을 고루 갖춘 고려 시대 이후 전통적인 술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전승 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시중은행 임원 연봉

최대 30% 삭감 요구

금감원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외 채무 보증을 조건으로 시중은행 임원 연봉의 10~30% 삭감을 요구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일까지 세부 이행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받아 13일까지 심사한 뒤 14일에 개별 은행들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상득 의원

한일의원연맹이 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간사단회의를 열고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새 회장에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부회장을 겸 간사장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 간사장 대리에 한나라당 전여욱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고문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민주당 박상전 전 대표, 김영진 의원 등이 위촉됐으며 부회장은 민주당 강봉균 최인기 의원이 지명됐다.

이낙연 간사장은 “올해 안에 일본을 방문, 금융위기 해소를 비롯해 한일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화순광업소 광원 건강 ‘전국 최악’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석탄공사 자료 분석

1,808명중 496명 난청·진폐·고혈압 등 시달려

화순광업소 광원들의 건강 상태가 전국 광원들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최근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대한석탄공사 각 광업소별 광원 정기검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천808명 중 27.4%인 496명이 난청, 진폐,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는 1천772명 중 38.4%인 681명,

2005년엔 1천784명 중 17.4%인 310명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다.

특히 화순광업소 광원의 경우 지난해 중 376명 중 33.8%인 127명, 2006년에 366명 중 56.0%인 205명, 2005년에 364명 중 28.3%인 103명이 각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광업소의 이같은 질환자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6.4%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을 비롯, 2006년 17.6%포인트,

2005년 10.9%포인트씩 평균치를 상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장성광업소는 지난해 29.3%, 2006년 36.8%, 2005년 10.2%, 도계광업소의 경우 지난해 18.2%, 2006년 27.7%, 2005년 24.0%의 광원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석탄공사의 광원 건강에 대한 대책은 사전 예방보다는 광원들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후 의사 소견에 따라 보호구 착용 강화시 및 근무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앞뒤가 뒤바뀐 일처리를 하고 있다”며 “치료에 앞서 진폐 및 난청 이환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亞문화도시 조성 발전방안’ 토론회

7일 광주 YMCA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략적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문화도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는 정의화(한나라당), 조영택(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강만수 ‘현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

“강 장관 발언 유감”

현재, 재정부와 접촉 없어

與野 11일부터 8일간

여야는 7일 ‘기획재정부 가계부담완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접촉소와 접촉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와 모임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법제사법위의 합동진상조사위를 구성, 오는 11~18일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진상조사위원회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와 모임 2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현재의 중부세 위원회

사 전망을 묻자 “현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험 판결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 대정부질문 중단 사태를 빚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주요당 자치회의에서 “실언을 놓고 마치 큰 의욕이 있는 것으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어 열린 회담에서는 야권의 진상조사위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이명박 정부의 국가문란, 헌정유린 사태”라고 규정, 국회 대정부질문 보이콧으로 배수진을 치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장관의 사퇴, 국회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강 장관의 ‘현재 접촉’ 발언과 관련해 7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는 이날 자료를 내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현재연관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방의원 46명 쌀 직불금 수령

민주당 강기갑 의원 주장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46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강기갑 의원이 7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국 230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

자 및 2008년 신청자 명단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 정보와 대조·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기초의원 3명(광산구 1명, 북구 2명), 전남은 광역·기초의원 43명(광역 4명, 기초 39명)이 쌀 직

불금을 수령·신청했다. 이들이 신청·수령한 금액은 광주 471만원, 전남은 6천986만원이었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4명은 무소속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435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자치단체장은 6명이고,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이었다. 자치단체장 6명은 시장이 1명, 군수가 5명으로 집계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은 없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 설

수도권 규제 풀지 말고, 지방 경제 살려내라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지방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추가 세입과 개발 이익금 지방이전,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 지방금융도시 건설 등이다. 지방으로선 설익은 설익은 대책뿐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분노한 지방의 민심을 달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수도권 추가 세입과 개발 이익금의 지방이전부터 말이 안 된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약속했지만,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사람과 돈과 공장이 몰려가고 지방은 ‘공동화’ 될 것이 뻔한데 개발이익의 몇 톨 돌려준다고 달라질 게 있겠는가.

개발이익금의 지방 지원은 ‘푼돈’ 수준일 수밖에 없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수도권에 5조원을 추가 투자할 경우 개발이익금은 법인세 660억원과 소득세 850억원 등 연간 1천51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이익금으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할 수는 없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도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수도권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세수가 늘겠지만, 세원이 거의 없는 전남·북 등 농촌 지자체는 고질적인 재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낙후 지역 재정보조와 같은 보완장치 없이는 더욱 심한 지역격차를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여당 대표의 지방금융도시 건설 발언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앞장서 온 부산만을 무마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비수도권 주민을 달랠 방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지방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

금융권,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0.25%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1개월만에 연 5.25%에서 4.0%로 1.25%나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잇달아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근의 실물경제의 하락 추세를 막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최근 국내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경제를 뒷받침하던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 둔화 추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가계나 기업은 자금 유통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은행권 규제를 완화해도 막힌 자금난은 풀리지 않고 있다. 금융 경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위기가 악화

하려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과 일반 가계의 곤경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기업과 가계는 신규 대출이나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기대할 수 없다. 가뭄 때는 대출을 적극 권했으면서도 막상 비가 내리니 우산을 겨워 뒤 틀리는 꼴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막힌 돈을 풀어보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금융권은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자기만 살겠다고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죄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재정상태가 건전한 기업까지 ‘흑자 부도’의 위험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겠는가. 은행권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기업과 가계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핵·금융위기 등 공조 재확인

후 대통령-오바마 전화통화

이명박 대통령과 제 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7일 오전 처음으로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약 12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은 북핵문제, 금융위기 등 외교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와 희망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오바마 당선인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면서 “하와이에서 자라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과 한국에 대해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은 “불고기와 김치를 좋아한다”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 메뉴”라고 강조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정육점 한우 쇠고기 값, 백화점의 절반”

소비자시민모임 밝혀

똑같은 부위, 등급의 국산 쇠고기(한우)를 사더라도 정육점에서 사면 백화점에서 살 때보다 부위에 따라 적어도 절반 수준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백화점이라고 해도 지역별로 최고 두 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7~28일 서울, 경기도 및 6개 광역시 등 8개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정육점 등

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격 조사는 백화점 20곳, 대형마트 122곳, 정육점 25곳 등 167곳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2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비 1등급(100g)의 백화점 평균가격은 7천500원인 데 비해 정육점에서는 평균 3천810원에 살 수 있었다. 백화점에선 1.85배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미치겠다

박람회 기본계획안 수정·보완 촉구

여수박람회 2차 위원총회...조직위 확대 개편키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2차 위원총회를 갖고 박람회 기본계획(안) 보완 및 조직위원 추가 선임, 정관 개정 등 모두 3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총회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장승우 조직위원장, 강봉균 국회 여수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 등 정·관계인사 100여 명과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박람회 기본계획안 이 다소 미흡한데다, 공청회와 지역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뒤 오는 25일 열리는 정부지원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 기업인과 시민단체, 개척지역 주요인사 등을 조직위원회 임원으로 추가 선임하기 위해 임원 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회의원과 기업인, 금융기관장, 공공기관장, 학계 인사 등 24명을 조직위원으로 추가 선임키로 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이날 위원총회에서 여수 공장에 300인승 이상의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400m 이상 확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2200-541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